

노동감독관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6.19.(금) 한국경제, “직장 내 괴롭힘 막으려다 괴롭힘 당한 공무원”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노동감독관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, 노동감독관을 비롯한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
-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, 산업재해, 직장 내 괴롭힘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
 - 최근 노동환경 변화와 국민 권리의식 향상 등에 따른 신고 사건 증가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
 - 특히,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*은 폭언·폭행·따돌림, 부당한 업무지시 등 조사와 처리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 사건 처리에 어려움 상당
 - *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'19년 법제화 된 이후 7년차 시행중이고, '25년 기준 신고사건이 16,373건으로 전년대비 20.4% 증가하는 등 노사의 관심도가 높음
 - 이에, 노동자의 권리보호 취지를 준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 하면서, 노동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
- 아울러, 올해 4월부터 시행된 팀제 운영에 있어서도, 팀장의 업무 부담 등 각종 애로사항을 지방관서와 수시로 소통하고 모니터링하면서,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임

- 기존 개인 중심 사건 처리에서 벗어나 팀 단위 협업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, 체불 전수조사·감독을 통해 신고 당사자 외 다른 체불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신고 사건과 사업장 감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,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적극 개선할 예정임
- 고용노동부는 반복·악성 민원으로부터의 직원 보호, 심리회복 지원, 우수 직원 인센티브 확대, 근무여건 개선 등 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조아라 (044-202-7553)
		담당자	서기관	박종길 (044-202-7528)
		담당자	주무관	오성곤 (044-202-7531)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송유나 (044-202-7526)
		담당자	사무관	오정택 (044-202-7539)

